

비용부담 어떻게...한전공대 아직 갈길이 멀다

한전공대 입지선정 공동위원회는 최근 서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열린 '한전공대 법정부 지원위원회' 본회의에서 전남 나주시 부영CC를 한전공대 입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전공대 설립이 본격화 되면서 재정부담에 대한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전력이 적자인데다가 운영비 일부 지원을 약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도 열악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전은 한전공대 설립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과 특별법 제정 등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한전공대 비용 부담 관련
7월 한전에 따르면 한전공대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6개 학과에 학부생 400명, 대학원생 600명, 교수 100명으로 꾸려진다. 등록금 전액 면제에 기술사까지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부지는 지난달 28일 중간 용역보고에서 입지선정위원회가 나누 혁신도시 한전 본사 바로 옆 부영골프장 일원으로 확정했다. 부영그룹이 무상으로 내놓은 골프장 40만㎡와 인근 국공유지 80만㎡를 더해 모두 120만㎡ 규모로 조성된다.

한전은 공대 설립에 약 5,000억원이 필요하고, 설립 후에도 매년 운영비로 약 500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공대의 비용부담을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관건이다.

한전은 6년 만에 4,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는 전남도

설립비용 5천억...매년 운영비 500억 예상
정부 재정지원·특별법제정 법적장치 시급
한전, 대학운영방안 최종용역 4월초 발표

도 한전공대 운영비에 부담을 안고 있다. 전남도는 재정자립도가 30%대로 17개 광역시 중 꼴찌여서 재정 지원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전 측은 국회 차원의 특별법 제정이나 정부 차원의 시행령 개정 등으로 국비 지원을 받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부에선 과거 정부나 공공기관의 대학 운영 실패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표적 사례 중 하나는 과거 정보통신

부와 산하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민간 KT 등이 공동으로 설립해 1998년 개교한 사립대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를 들 수 있다.

이후 정권이 바뀌고 ICU는 국가나 공공기관은 사립학교를 설립할 수 없음에도 규정을 어기고 국비를 지원받았다는 감사원의 지적(2004년)을 받고 2007년부터 예산 지원을 받지 못했다.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이스트(KAIST)와 통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고, 결국 2009년 1월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을

거쳐 같은 해 3월 ICU는 카이스트와 통합됐다. 또 다른 사례는 1964년 설립한 수도공대를 들 수 있다. 당시 한전이 세운 학교법인 한전학원은 정부 설립인가를 받아 전기공학·기계공학·토목공학 등 3개 학과로 수도공업초급대학을 만들었고, 재인가를 거쳐 4년제 '수도공업공과대학'으로 개편해 운영했다.

하지만 한전의 재정 부족으로 1971년 10월 홍익학원(홍익대학교)에 이양됐다. 별도 수입원 없이 학생이 낸 등록금과 한전 보조금으로만 운영하다가 보조금 삭감 등에 따른 재정난에 10년도 못 버티고 문을 닫은 것이다.

◇정부차원 정부지원 절실
한전은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대학 설립과 지속가능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과 특별법 제정 등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정부 재정 지원을 이끌기 위해선 유니스트 설립 과정에서 만든 특별법(울산과학기술원법)과 같은 법을 제정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데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의 박명우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전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한전공대 설립에 반대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한전은 대학운영방안 등이 담긴 최종 용역보고서를 3월까지 마무리짓고 4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에는 정부 재정 지원을 이끌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전 고위 관계자는 "수도공대 이양 선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특별법 제정 등 법적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라며 "대학운영방안을 담은 최종 용역 결과를 3월에 마무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사학연금공단은 최근 나주본부 2층 세미나실에서 경영전략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사학연금 제공

사회적 가치 성과창출 원년 도약 선포

사학공단 경영전략보고대회
사학연금공단은 최근 나주본부 2층 세미나실에서 전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전략 실행력 강화와 내재화를 위해 경영전략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학연금은 중장기 전략과제를

기반으로 대내외 핵심이슈 분석 등을 통해 수립된 2019년 전략체계 및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중점 추진방향을 선포했다.

특히 TP 경영전략서 발간을 통해 '업에 기반한 사회적 가치 성과창출의 원년'을 2019년 목표로 정하고 모든 교직원들이 혜택을 받는 연금서비스, 공적

기금의 사회적 책임 강화, 양질의 공정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중훈 이사장은 "2019년 뚜렷한 목표와 방향이 정립됐다"며 "소통과 혁신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박선옥 기자

한전KDN, 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

청렴문화 정착 등 2개 영역 만점
한전KDN이 국민권익위원회 '2018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에 선정됐다.

이는 지난 연말 권익위에서 발표한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2년 연속 우수(2등급)' 기관 선정에 이은 성과다.

한전KDN은 청렴문화 정착, 청렴개선 효과 등 2개 영역에서 만점을 획득했다.

특히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 영역 점수는 지난해 60점에서 올해 97점으로 크게 향상됐다.

한전KDN은 지난해 2월 박성철 사장 취임 이후, 윤리경영 전담부서인 윤리준법팀을 신설하는 등 윤리경영 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11월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국제표준인 반부패경영시스템 'ISO37001'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박성철 사장은 "내부 윤리경영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은 물론, 국민주도의 청렴한국 실현을 위한 민간분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윤리경영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서미애 기자

농지연금 월 최대 20.6% 더 받는다

농어촌공사, 감정평가액 반영율 상향 등 제도개선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이 운영하는 농지연금 월 연금액이 최대 20.6% 늘어난다고 밝혔다.

농지은행은 월지급금 산정기준인 감정평가 반영율을 현행 80%에서 90%로 상향하고 기대이율과 기대수명 등 기초변수를 조정해 가입자가 더 많은 월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로써 올해 신규가입자는 감정평가 방법을 선택할 경우 최대 20.6%, 공시

지가를 선택할 경우 최대 7.3%의 월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다.

2011년 농지연금 출시 이후 평균 17% 수준으로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4% 늘어난 2,652건이 신규가입했다.

농지은행 관계자는 "농지연금은 평생 농사만 짓느라 미처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농업을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농

업인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연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 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 등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예상 연금액 조회, 연금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농지은행 포털(www.fbo.or.kr) 또는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본부나 각 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선옥 기자



aT, 신남방 수출확대 전략회의 개최

한국 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최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국내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아세안시장 진출을 위한 신남방 수출확대 전략회

의를 개최했다. (사진) aT 김창국 아세안지역본부장의 '2019 신남방 진출전략 주제발표'를 비롯해 Red & Hot의 대표키워드 중

하나인 컵떡볶이로 미얀마 진출에 성공한 ㈜영풍과 신선농산물 상설판매관인 태국의 K-Fresh Zone을 통해 생산 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플랫폼 구축에 성공한 경기무역공사의 시장진출 사례와 성공노하우가 수출업체들에게 전수됐다.

또한 aT는 2025년 아세안지역의 한국농식품수출 30억 달러, 전체 농식품수출비중의 25%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수출전략도 제시했다.

aT는 ▲타깃시장에 대한 충분한 정보수집 ▲국가별 상이한 소비트렌드 공략 ▲신선농산물도 품질우선 ▲현지화제품은 진출국의 소득수준 고려 ▲소매유통시장(편의점)의 성장세 주목 ▲온라인마켓 진출시도 등이 진출전략으로 발표했다. /박선옥 기자

누구나 쉽게 바르는 황토 벽지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살아 숨쉬는 고어텍스 특허공법 천연황토 코팅제!!

▶ 용도 ... 어린이집·유치원·한옥 내·외부·방바닥·전원주택·경로당·아파트·펜션·찜질방·카페·휴집 외벽·목재·양어장·물탱크·기타 인테리어를 요하는 곳
비가 오면 축축하거나 물이 새어 곰팡이 생기는 모든 곳
기존 황토미장된 곳이나 도배지를 뜯지 않고 위에 시공을 요하는 모든 곳
...비염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방이나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 친환경성 천연황토, 게르마늄, 솔잎, 편백나무, 약쑥, 참숯, 은행일등 건강에 좋은재료를 엄선하여 고분말로 만들어 술향기나는 친환경 웰빙제품입니다.

▶ 색도조절제 화이트(600g) : 원하는 색상 조절가능



제가 황토 제품과 비교 절대 불가!!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
시중에 검증 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 업체입니다.

전화 문의시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구입시 시의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korea.biz